난방비 소요량 지도, 아열대 과일 재배적지 확인

농진청, "과수 작목은 난방비 부담 커 신중하게 선택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아열대 과일 재배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 작물별 등유 소요량 지도를 작성하고, 난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을 제시했다.

망고, 파파야 같은 아열대 과일은 온난화와 수입 증가에 따라 새로운 작목으로 인식돼 재배면적이 늘고 있다.

국내 아열대 과일 재배면적은 2017년 109.5㏊에서 2022년 188.8로 1.7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작물은 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온도가 다른 작물보다 높은 편이어서 농가 경영비 가운데 난방비 비중이 큰 편이다. 난방비가 망고는 경영비의 55%, 파파야는 경영비의 60% 이상 차지한다.

연구진은 패션푸르트, 파파야, 망고, 용과, 토마토, 만감류를 대상으로 2월 한 달간 1,000㎡당 필요한 등유(0~30,000L)을 추정했다.

또한, 등유 소요량을 토대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종합해 노란색부터 빨간색까지 9단계로 구분한 작물별 등유 소요량 지도를 만들었다.

등유 소요량 지도에 따르면, 아열대 작물의 재배 권장 지역은 등유 소유량 1만 1,900리터(L) 이하, 탄소 배출량 30톤 이하인 곳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중온성인 '아열대성 망고'는 전남 해남지역 이하에서 재배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망고는 난방비 외에도 시설 온실 설치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작목이므로 농가에서는 재배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에너지 소요량 지도를 도 농업기술원에 배포해 아열대 작물 재배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김대현 소장은 "새로운 소득 작물로 아열대 과일에 지자체와 농가의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 농가에서 이번 등유 소요량 지도를 참조하면, 난방비가 적게 들고 정부의 탄소 저감 정책에도 부합되며, 경제성 높은 작물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옥기기자

농협 김제시지부, 광활 시설감자 재배현장 방문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조원석)는 지난 13일 임영용 광활농협 조합장과 함께 광활면 소재 시설감자 재배 현장을 방문, 감자 생육상황을 점검했다.

이날은 지난 1월 고온·다습 이상기후로 인한 감자 생육상태 확인과 감자 재배 농가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였다.

이날 점검에서 현재까지의 작황 상태는 양호하고 3월 중순경부터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임영용 조합장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재 지원 뿐만 아니라 감자 재배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여 생산성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국 시설감자 최대 주산지의 명성에 걸맞게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석 지부장은 "이상 기후로 인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는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조합원이 애써 키운 농산물이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광활면에서는 15개 작목반 260여 농가가 593ha면적에서 시설하우스 감자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시설감자 생산량의 35%를 차지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자치도,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기업애로해소 우수사례 발표

기업의 어려움 함께 고민 · 처리한 전담 · 처리 공무원 4명 표창

수출 제재 대상 제외 · 제품 홍보 등 다양한 분야 기업 애로 해결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열린 첫 소통의 날 행사에서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기업애로해소 유공자 표창과 함께 선정된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선 8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사례를 공유하며 기업애로해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이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 홍석호 팀장은 '대(對) 러시아 수출제재로 인한 수출중단 위기'에 처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을 방문해 해당 제품이 무기로 전환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함으로써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의 수출액 증가 및 협력업체까지 혜택을 보게 된 사례를 발표했다.

건강증진과 최용대 팀장은 전담기업이 '인증, 특허를 받은 우수제품임에도 판로를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듣고 회사 제품소개서 등을 관공서에 발송하고, 8개 기관(서울시, 경기도, 새만금개발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노력을 통해 지난해 11월 서울시와의 납품계약을 이끌어 내 35억원의 매출을 이룬 성과를 소개했다.

미래산업과 양삼봉 팀장은 '허브농가 폐업으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화장품 원료제조·판매업체를 위해 시와 협의를 통해 인근 농지 2,600평(공유재산)을 제공해 원료수급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숙사 용도변경 애로 등 인허가 처리를 함께해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줬다.

안전정책과 정재관 팀장은 '재난안전 연구개발 수행업체가 실증기관 변경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 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실증기관, 피난기구, 연구방식 등 변경을 추진하여 당초 사업비 보다 1억원 추가 소요 및 사업기간을 줄여주는 도움을 줬다.

김희옥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우수사례를 통해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기업과 행정을 이어주는 소통의 창구로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을 입증했다"며, "특히 올해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의 실효성을 느낀 전 시군의 참여로 더 많은 도내 업체들이 전담되어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도-시군 기업애로해소 업무협약'을 통해 전 시군에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개발공사,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산업재해 · 안전사고 예방 위해 15일부터 27일까지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해빙기 대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27일까지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가 관리중인 시설물 13개소 및 토목·골조공사가 진행중인 건설현장 4개소로 총 17개소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사장 굴착면·흙막이 무너짐, 지반침하 예방조치 점검 △사면, 옹벽·석축 등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점검 △사면, 옹벽·석축 등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점검

△안전시설(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설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최정호 사장은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지반구조가 약화되는 해빙기에는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사람 중심으로 주변환경을 살피고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옥기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한국새농민회 전북도회는 14일 전북농협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새농민 전북, 대의원 정기총회

임원 · 시군 대의원 50여명, 2024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사)한국새농민회 전북도회(회장 이기성)는 14일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 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김안석 새농민회 전국회장,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을 비롯한 도내 새농민회 임원 및 시군 대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회계 결산 및 2024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발전을 위한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를 통해 전북 새농민회는 회원들이 우수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우수 농축산물 답례품 제공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새농민회 전북도회 이기성 회장은 "새농민회의 친목과 화합을 통한 활성화, 우수농업기술 전파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 활성화와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농촌을 살리는 지역의 리더로서 지역농업 발전과 선진 영농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새농민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더 칭찬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개시

전북중기청, 전기요금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옥기기자